

<2022년 6월 22일 수요일 새벽, 주 말씀>

1. 자기 주관이 자기를 가리게 한다.
2. 숲속의 참나무가 소나무를 그늘지게 하여 햇빛을 못 보고 속 가지가 죽게 하듯이, 사람도 자기 주관과 사고와 생각이 자기를 그늘지게 하여 자기 재능과 소질과 능력이 죽어가게도 한다.
3. 성령과 일체 되어 살면, 자기를 가리고 있는 것을 깨닫게 하여 고치고 행하게 해 주신다.
4. 저마다 마음과 성격을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하게 고쳐야 된다. 마음과 성격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고칠 때까지 기다리기도 하시고, 그 수준에서만 대해 주기도 하신다.
5. 사람의 마음은 수백 가지다. 차갑고 무뎡뎡한 마음, 약한 마음, 날카로운 마음, 무서운 마음, 혈기의 마음, 고집과 교만의 마음, 무지의 마음, 자존심과 성격이 강한 마음, 너그러운 마음, 인색한 마음, 게으른 마음, 시기 질투하는 마음, 까다로운 마음, 남의 마음을 몰라주는 마음, 자기만 생각하는 마음, 형제의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않는 마음, 남이 잘못하는 꼴을 못 보는 마음, 심정 상해하는 마음, 상대의 마음을 읽지 못하고 대하는 마음, 사랑스러운 마음, 착한 마음, 인내하는 마음, 양 같은 마음, 온유한 마음, 청결한 마음, 가난한 마음, 겸손한 마음, 선한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돕는 마음 등이다. 여러 마음들을 하나님과 성령님의 마음에 들게 만들지 않으면 편안하게 살지 못한다.